

## 부 고

마리아 아구스타 MARIA AGUSTA 수녀

ND 5316



크리스티나 포니다 Christina PONIDAH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39 년 3 월 2 일 인도네시아 고데안  
서 원: 1964 년 7 월 8 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21 년 11 월 15 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매 장: 2021 년 11 월 16 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크리스티나 포니다는 회교도 가정인 세트로레조와 무르티자에게서 난 세 명의 아들과 여섯 명의 딸들 중 맏이였다. 포니다는 1945 년 9 월 9 일에 푸르발링가의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열흘 후 같은 성당에서 쇼마커 몬시뇰의 손에 견진성사를 받았다.

크리스티나 포니다는 1961 년 8 월 15 일에 페칼롱간의 노트담 청원소에 입회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의 수도 성소에 응답했다. 1962 년 7 월 8 일, 착복을 하면서 마리아 아구스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양성기에는 노트담 수녀회의 회원으로서 사랑을 키워갔으며 1964 년 7 월 8 일에 첫 서원을 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소를 발전시키고 강화해갔다. 마리아 아구스타 수녀는 유기서원을 하면서 교육 사도직을 시작했다. 1970 년 2 월 2 일, 수녀는 종신선서를 받았다.

푸르발링가의 성 비오 학교, 자카르타의 RICI 학교에서는 교육부서에서 일했고 페칼롱간의 성 비오 중학교에서는 교장이었으며, 산타 마리아 재단 이사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페칼롱간의 성 요셉 공동체와 자카르타 노트담 공동체 분원 책임자가 되었다.

마리아 아구스타 수녀는 매일의 삶에서 굳건하고 성실했으며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규율을 지키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있고 온화했다. 언제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모범이셨던 예수, 마리아, 요셉에게서 힘을 얻곤 했다. 페칼롱간은 수녀의 은퇴장소가 되어 그곳의 재봉실에서 일했다.

2019 년 이후로, 수녀는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재봉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고혈압, 진성 당뇨병, 뇌경색을 앓아 페칼롱간의 부디 라하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모든 고통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위해 희생으로 바쳤다. 2021 년 4 월,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입원이 필요했다. 2021 년 11 월 15 일, 마리아 아구스타 수녀는 페칼롱간의 부디 라하유 병원에서 하느님께서 계신 본향으로 조용히 떠나갔다.

평안히 쉬소서.